

서양산 역사 이론이 동양엔 잘 안 먹히는 사례 하나

잡잡



송나라 세워지고 나서 당나라가 대표하던 천하 일극 주권국의 세계관은 황천길을 가버림. 송나라가 돈은 더 많았대도 당시 국제 질서는 당나라 잘 나갈 때에 비해 훨씬 더 다극적이었거든.

이에 더해 경제 발전으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경제우 사회가 돌아가는 옛날 식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음. 학자들은 관료가 되기를 거부하고 국가의 시장 간섭과 형벌 제도 등을 탄압이라고 비판하기 시작.

결국 남송 대가 되면 아예 자유 시장을 통해 나타난 부자들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역사의 필연적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식의 유지주의 감성 오지는 주장까지 학계에서 나올 지경이 됨.

그런데 정부는 전혀 변화하지 않음. 남송 정부는 여전히 이전에 완전히 말아먹고 욕 먹은 왕안석의 국가주의 개혁을 밀고 있었고, 민간 지식인들의 요구에는 사상 탄압으로 답함. 그마저도 얼마 못 가지만.

이후 명나라가 들어서고 나서도, 주원장은 당대 사상적 조류 따위 무시하고 정교한 행정체계와 절대군주로 굴러가는 중앙집권 국가를 만듦. 그리고 당연히 이 시스템은 무너졌지만, 명나라 정부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었음.

결국 정부는 중앙집권이다 뭐다 하는데 정작 현실은 정교한 행정 장부 이미 실체랑 안드로메다 된 지 오래고, 민간 사회에는 정부 관료보다도 씨족이랑 통제 싫어하는 유교맨들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이후로도 중국 정부는 중국 사회의 사상적 조류나 물질적 변화에 별로 호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유물론적 발전사관이고 관념론적 발전사관이고 중국 정부는 모두를 거부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마도 해깬이 중국에 시간이 없다고 한 게 '수천 년 동안 절대군주제 일변도라니 저 곳은 사상적 변화도 없었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론 사상적 변화 아주 혁명급으로 있었음. 정부가 씹은 것이지.

강력크한 황제 아래선 역사 이론 따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시다

- dc official App